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이번엔 진정한 리더십 갖춘 지혜로운 문인 왕

KBS 1TV '대왕의 꿈' 태종무열왕 김춘추 역 최수종

"지금까지 무인(武人)에 가깝게 나라를 세웠다면, '대왕의 꿈'에서는 문인(文人)으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전작 '프레지던트'처럼 정치 세계라는 게, 어떤 인물이 추대되고서 그 험한 길을 그냥 쉽게 올라가는 법은 없더라고요. 물론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김유신도 있고, 제 부인도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올라가죠." 배우 최수종(50)처럼 사극에서 왕좌에 많이 오른 이는 드물다.

기 위해 머리를 조이는 게 너무 아프다"며 "고난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극이지만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예전 사극에서 '우리는 나라를 작지만 크고 위대한 민족'이라는 소강국을 보여줬다면 '대왕의 꿈'의 신라는 약소국이예요. 하지만 정치 개혁을 통해 국론을 통일하고,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능동적 외교술로 나라를 이끌어가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주체적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최수종은 그가 맡은 김춘추를 두고 "백성의 열망을 한 걸음 앞서 생각하는 한편, 약자를 포용하고 감자에게 정당하게 지혜를 발휘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지도 퓨전 사극에 캐스팅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캐스팅이 안 되니까 못하지요. (웃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0일(음 7월 24일 甲戌)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dvice and lucky numbers.

Table of EBS program schedules, including EBS and EBS Plus 1/2 listing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What's it called?' (이름이 뭔데요?) featuring a story about a clinic and a quiz.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니하오 풍구위' (중간에서 출가하다) and '오하오우 니혼고' (놀지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